



퀴어축제 열린 서울광장 반대편, '세례자 요한'의 함성소리 들려

2018 동성애퀴어
축제반대국민대회
개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가 14일 오후 1시에 대한문 광장에서 '퀴어축제' 반론을 개최하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번 국민대회는 흥호수 목사가 사회를, 연세중앙교회 초등부 워십팀이 문화공연을 동성애퀴어축제반대대회장 겸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이 대회사를,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김선규 목사는 격려사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밖에 되었으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들을 위해 중요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위해 기도와 예배에 동참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세례요한은 사회의 죄악을 지적했고 잘못된 점을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적 죄악인 동성애를 책망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사회적이 더 이상 뿌리 내려서는 안 되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동성애를 서울광장 한복판에서 허용하는 것은 혀못의 죄악을 범하는 일"이라며 "주님은 전진 편에 계시며, 여러분의 기도와 외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 한다"고 말했다.

2007년 차별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저지를 위해 11년 동안 노력했던 에스더기 도운동본부 대표 겸 공동대회장인 이용희 교수가 인사말씀을 전했다. 그는 "서울광장 동성애 반대 국민청원이 22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그러나 퀴어 축제가 서울시 광장위원회의 허락을 받았기에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데 문제없다"는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의 발언을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청와대는 왜 국민청원제도를 만들었는가"라며 "작년에 낙태법 폐지에 23만 명의 국민이 청원했는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정부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주에 여론조사에서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 개최에 시민들의

67%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광장에서 음란공연을 하고 성인용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퀴어 축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89%나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 1조는 '시민의 건전한 문화 활동, 공익적 집회의 진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음란성이 상존해 퀴어 축제의 선정적 퍼모먼스는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에 역행하는 것이고 공익적이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부터 해마다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허용함으로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건전한 인권운동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탈행위인 동성 간 성행위 보호를 위해 동성애 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고 공식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퀴어 반대국민대회 참가자 전원이 성명서를 냈다. 대신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가 성명서를 대독했다. 그는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음란한 물건들을 전시 판매하고, 음란한 행위로 법적 도덕적 논란을 야기하여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로 침해하는 퀴어 축제를 규탄 한다"고 외쳤다.

이어 그는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공개적인 논의나 의사결정 과정 없이 퀴어축제에 공식 참여함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나아가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침탈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에 어긋난 처지를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킨 국가의 대사관들이 퀴어 축제에 참여해 동성결혼 인정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일반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문란한 성적 문화를 강요하는 행위"라며 "20개 대사관은 퀴어축제부스에 서 철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퀴어 축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뿐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딕국가(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미국대사관, 유럽연합대표부, 프랑스, 독일대사관이 공식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서울시민의 건전한 문화와 공의 행사를 위한 서울광장에서 선정

적인 음란 공연과 물건을 전시하여,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조성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동성애에 빠질 위험을 조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퀴어 축제 주최 측을 강력 규탄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동성애의 심각한 보건적 유해성과 동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 발병과 확산의 큰 원인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정직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청소년 유해 매체에 동성애를 주가하는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국민대회의 2부 순서가 교계연합 예배 및 기도회로 진행됐다. 예상 부총회장 문정민 목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모든 참석자에게 불렀고, 합진 총회 부총회장 백성호 장로가 대표기도를, 둘째 사모가 합창단이 특별 찬양을, 한기총 총무협회장 김경만 목사가 로마서 1:26-27절을 봉독 했다. 이어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그는 "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순리이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음욕에 불일듯 남자를 취하는 것은 역리"라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자인 그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 줘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이고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열왕기상 14:24에 '그 땅에 또 남색 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죽어나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분발해 행하였더라'와 열왕기상 22:46절의 '그(여호사밧)가 그의 아버지 아시아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 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죽어 내었더라'를 인용하며 '동성애는 사회에 절대 뿌리 내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 나라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명한 윤리적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엄기호 목사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치유 받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되묻으며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되었다고 정죄만 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자"면서 "동성애자들이 더 이

상 성경 말씀에 위배되어 살지 않고, 스스로 뉘우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이겨냅과 동시에 믿음과 말씀 충만으로 동성애를 이겨내는 길을 우리가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 받을 때 까지 기도로 잘 이끌어 주길 부탁드린다"며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 이 국민대회를 개최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이 땅에 동성애가 점점 없어지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당부하며 설교를 마무리 지었다. 설교 이후 집회 참석자 전원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째로 동성애조장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를 위해, 두 번째로 나라와 정치지도자를 위해, 세 번째로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을 위해, 네 번째로 건강한 가정과 생명존중을 위해 참석자 일동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염원하며 20분가량 합심 기도했다.

이어 한기연 증경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축도를 했고, 곧바로 구호제창의 시간을 가졌다. 구호 제창에는 광주동성애 대책시민연대 정미경 대표, 강원교우회 폴리온 대표,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 모연합 김하나 대표, 울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이화영 사무국장, 충북교육시민사회 단체협의회 이재수 상임대표,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김기경 대표, 인천기독교총연합회 김길수 대외사무총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영준 본부장,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경남연합사무국장 자정화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공동사무총장 김진호 목사가 퍼레이드 행사를 위한 광고를 전하며 제 2부 교계연합 예배 및 기도회의 모든 순서는 마무리됐다.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15시부터 17시 까지 대한문광장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돌아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퍼레이드를 진행 했으며, 다만 국민대회 반대편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퀴어축제 진영 측과 별다른 충돌 없이 행진 했다. 이어 4부 문화축제가 17부터 19시 까지 진행되면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노형구 기자

퀴어축제 vs 반대집회

14일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가운데(오른쪽), 대한문 앞에서는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왼쪽)가 열렸다. 국민대회 측은 약 6만 명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고 밝혔다.

박용국 기자

“북·중 단속에 탈북민 감소 우려”

탈북민이 크게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3일 "탈북민 수가 감소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VOA가 전했다.

통일부가 최근 개선한 탈북민 입국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6월)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488명으로 작년보다 100명 이상 줄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도 지난 2016 회계연도에 19명을 기록한 뒤 2017 회계연도에 1명, 올해는 지난 6월 말 현재 3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과 탈북 지원가들은 탈북민이 감소하는 이유로 북·중 국경의 경비와 북한 정권의 처벌 강화, 탈북 중개인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 등을 지적했다.

한국 갤럽선교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은 대개 3~5년, 한국행을 기도한 경우는 최근에 한 탈북 민이 8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우 사무총장도 "탈북민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처벌이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은 목사 등 탈북민을 돋는 복수의 관계자는

"북한 보위 당국이 휴대전화를 감청 한 뒤 나중에 일괄적으로 체포하는 등 단속도 더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 때문에 지난 1~2년 사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도장비가 2~3배로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탈북 중개인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중국의 연변까지 가는 비용은 현재

적어도 2~3만 달러로 올랐다.

미 해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런 현상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노스 연구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탈북 방지 등 미국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난민 수용 규모를 줄이는 현상을 지적하며 탈북 난민의 입국에도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무부가 최근 개선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4만 5천 명으로 편성했지만, 지난 6월 말까지 입국한 전체 난민은 1만 6천 230명에 불과했다.

스칼라우 사무총장은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택한 뒤 지금까지 수용한 탈북민이 215명이란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 더 많은 북한인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에 난민 지위를 받아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가족이 미국에 있는 한 국적에 관계없이 적어도 1~2년 이상을 난민 신청을 한 국가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탈북민이 미국보다 월 씬 빠르게 갈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행을 선호해 왔다.

미 전문가들도 "이런 한국의 강점에 동의하면서도 탈북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정착지를 선택하고 북한의 잔인한 상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대북 정보를 더 많이 유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특히 "이런 정보 유입이 북한인들의 선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 때문에 지난 1~2년 사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도장비가 2~3배로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탈북 중개인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중국의 연변까지 가는 비용은 현재

‘억울한 옥살이’ 백영모 선교사 석방 청원 기각

필리핀에 억울하게 갇힌 백영모 선교사의 석방 청원이 필리핀 법원에서 기각처리 됐다. 백 선교사 석방을 위한 청와대 청원자는 약 18만 명이 됐다.

백 선교사는 지난 7월 11일 경찰서 유치장에 나와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감되기 전에 백선교사석방대책위에서 면회를 했는데, 백 선교사가 한 국교회를 향해 이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요청했다.

백 선교사는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교회 모든 교인들이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다는 말씀듣고 힘을 낸다"며 "개인적으로 잘못된 일이 없음에도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또 백 선교사는 "성도님들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래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가서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이야기도 간증

하고 하나님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울며며 재차 기도를 부탁했다.

앞으로 백 선교사는 이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책위는 필리핀의 유명 로펌을 통해 백 선교사의 석방에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다. 우선, 재판에 앞서 재심 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재심의 결과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성도들의 더 큰 기도와 성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백 선교사의 아내 배 모 선교사가 올린 청와대 청원자 수자가 20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20만 명이 청원을 하면, 청와대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사모 배 선교사는 "억울하고 힘든 저희들의 사정을 알아봐주시고 이곳 (필리핀 안티풀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도록 간절히 청원 드린다"고 했다.

홍은혜 기자

예배에서 1장 13절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聖靈)의 날인(捺印)을 받았다고 합니다.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 왔습니다. 우리의 어디에 성령의 날인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 그 날인이 있습니까? 몸에 있다면 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입은 어떤 외상에, 상처에 성령의 날인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 그 날인이 있습니까? 몸에 있다면 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입은 어떤 외상에, 상처에 성령의 날인이 있습니까? 절뚝거리는 아픔은 부러진 환도 빠 같은 것이 어쩌면 날인의 표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에 성령의 날인이 있습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서두에서 우리는 “은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기독교의 기원과 전통과 성경을 배우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진리를 깨닫고, 믿고, 그리고 자유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자유를 체험하였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부름 받은 것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디쯤에 “성령의 날인”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그 날인인가요? 하나님의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서명(署名)하시고(signed), 봉인(封印)하신(sealed) 그 도장(圖章, signet)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장”(계 7:2; 9:4)이라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써어주신 그 도장”은 이미 “은유”입니다. 은유법은 비유법 중의 하나입니다. 사물의 본뜻은 숨기고 표현하려는 대상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앤디 포도원의 고별 꽃송이로”(아 1:14). 남자가 자기 여자를 두고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은유입니다. 여자도 응답합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아 1:15).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는” 은유가 아니고 직유입니다. “...가... 같다” 이것은 직유입니다.

최근에 모 정당 권한대행이, 자체 정당의 문제를 심한 중증외상(重症外傷)으로 진단하고, 모 대학병원 중증외상센터장에게 가서 자기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

어 줄 것을 제안 했으나 그 의사가 그 제안을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권한대행이 비유적 암시를 역사적 사실로 착각한 것은 아닐 거고... 저에게는 그 권한 대행이 자기 당이 당면한 사태의 심각성을 행위비유(行爲比喩) 혹은 행위유(行爲隱喻)로 연출한 기가 막힌 행위에 언(行為豫言)으로 보입니다. 오죽 담담했으면 그랬으랴가 아니라, 자기 당이 당한 처지의 심각성을 온 국민에게 깊이 각인시키려는 의사 전달 행위로 보입니다.

우주선(宇宙船)을 타고 “하늘 영역” 혹은 “하늘 세계”로 가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찾아보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극단적 문자주의(literalism)에서는 가능한 일일 것이라면, 일반적 상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apse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끄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새번역’ 악 8:6)

아가의 여주인공이 자기 남자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날인”이라는 표현이 언어에 따라서는 난해한 은유일 수는 있어도 “사랑의 날인”이라고 하면 아가에서 보듯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이 성령(聖靈)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完全)히 구원(救援)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相續)의 담보(擔保)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讚美)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라고 한 것을 보니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14절은 성령이 “우리의 상속의 담보”라고 합니다. 1) 성령은 보증(保證)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다>는 보증입니다. 2) 성령은 담보(擔保)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에 대한 담보입니다. 성령이 바로 담보입니다. 담보란 체무 불이행 때 체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미리 체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성령의 날인” 그 흔적이 내 몸 어디에 있는지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사랑의 날인의 흔적을 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몸과 마음에도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령”을 받으시는 것과 “사랑”을 받으시는 것의 경험의 유사성에 착안할 때 성령 체험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장 새기듯,
하나님의 마음에 저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하나님의 팔에 저를 새기세요.
그래! 그러지!
도장(圖章) 새기듯,

내 마음에 너를 새기마.
도장 새기듯,
내 팔에 너를 새기마.
하나님, 저두요!
도장(圖章) 새기듯,
제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제 팔에 하나님을 새기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바로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 민영진 박사는 전 대한성서공회 총무로, 구약 신학학자로서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경번역가이다. 연세대신학대학을 거쳐 이스라엘 히브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민 목사는 ‘표준 새번역’과 ‘새번역’ ‘개역개정판’ ‘공동번역’ 등의 성경 개정 작업을 전무지휘했다.

* 설교는 지난 2018년 7월 15일 ‘함께 하는 예배’ 공동체 주일예배 설교문임을 밝힙니다.

칼빈주의는 진화론을 어떻게 보았는가: 구 프린스턴 두 신학자 고민을 중심으로

조덕영 박사의 창조신학칼럼 “창조연대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프린스턴 신학의 출발



창조신학연구소장
조덕영 박사

창조연대문제는 늘 진화론과 충돌을 야기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역사학자 마크 놀은 프린스턴 신학자들에 대해 미국적이며

칼빈주의를 정확한 미국의 억양으로 말한 자들이라고 표현한다. 구 프린스턴의 중심에는 아카비لد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 1772-1851)는 자신이 과학적 결론에 개방적이고자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다윈 시대의 신학자 찰스 헛지

“자연의 역사와 화학, 그리고 지질학은 성경 안에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도록 성경 연구자들을 돋는 면에서, 혹은 이러한 과학의 비호 아래 만들어진 적대자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면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찰스 헛지가 본 다윈의 진화론

하지만 알렉산더는 찰스 다윈 시대의 사람은 아니었다. 진정한 다윈 시대의 프린스턴 신학자는 찰스 헛지였다. 알렉산더 후임으로 그의 제자였던 찰스 헛지(Charles Hodge, 1797-1878)는 19세기 개신교 전통주의 중심으로서의 프린스턴 신학을 미국 신학으로 보편화 시킨 사람이었다. 이들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19세기 미국 개혁주의 신학의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과학과 신앙의 대면에도 활발히 관여한다. 왜냐하면 프린스턴에 있던 지리학, 지질학, 생물학 등등의 대변자들이 그들의 동료 신학자들과 같은 종교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

는 가정과, 이 진화가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 또는 적자생존(the survival of the fittest)에 의해 일어났으며 결국 다윈의 이론은 자연선택이 조자연적 지성의 설계.design) 없이 비지성적인 물리적 원인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보았다. 헛지는 우주의 창조와 섭리 과정에서 지성적 설계를 배제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른 창조의 가능성을 부정하므로 목적론적 설명이 배제된 다윈의 진화론은 수용할 수 없었다.

진화론의 자연선택 개념이 조자연적 설계나 목적의 원리를 방법론적으로 배제하게 되면 결국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학과 결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헛지가 볼 때 다윈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주장한 적은 없으나 다윈의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무신론적이었다. 헛지는 성경과 과학이 원칙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다. 헛지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윈의 진화론 같이 하나님의 조자연적 섭리(providence)를 무시하는 자연주의(naturalism)를 이론의 방법으로 삼는 과학의 이론은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이 유물론을 철저히 비판했던 헛지의 입장이었다. 필자는 헛지의 입장에 동의한다.

◆벤자민 워필드의 입장

하지만 반대로 진화론을 인정하는 신학자들도 나타났다. 헛지의 뒤를 이은 프린스턴 신학의 대표 주자 벤자민 워필드(B. B. Warfield)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워필드는 기독교적 시각을 개인의 죄와 칭의에 집중하는 마르틴 루터보다는 그 리스도인의 삶을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세계관 속에서 찾으려는 칼빈의 입장을 따른 개혁주의였다. 따라서 워필드는 헛지와 반대로 진화론을 기독교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심지어 워필드는 칼빈도 자신처럼 진화론자로 보았다. 마크 놀(M. A. Noll)이 칼빈을 진화론자라고 주장한 것도 결국 워필드의 견해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앞질러 간 것으로 여겨진다. 칼빈의 시대는 진화의 시대도 아니었고 칼빈의 어떤 주석에도 진화론은 등장하지 않으며 칼빈은 두드러진 과학의 이론도 아니었던 진화론에 적응할 리가 결코 없었다.

워필드는 다윈이 기독교를 거부한 이유는 신사과 가설에 너무 편견이 동원되어 생각의 유품을 가져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진화론은 맞되 다윈이 세련되게 그 이론을 정리하여 기독교와 충돌하지 않도록 내놓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이런 말만을 듣고 무작정 워필드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매도하려 드는 사람들을 보았다. 신

학의 역사에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사실 워필드는 역사적 칼빈주의에 충실하면서 현대주의의 도전에 맞서 수많은 논문과 수천편의 글들을 통해 성경의 무오(無誤)성을 수호하고 역사적 기독교를 수호하는 데 타의 추종을 불허한 학문적이면서도 탁월한 보수적인 신학자였다.

◆나가면서

구 프린스턴 안에서도 중심 인물인 헛지와 워필드 두 사람이 진화론 문제에 대해 견해를 달리했다는 것은 개혁주의 안에서 진화론과 그에 따른 창조연대문제에 있어서 일치된 견해를 도출해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개혁주의 안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칼빈을 두고 짚은 연대 주장자인가 아니면 오랜 연대 주장자인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아전인수격으로 칼빈을 자신의 견해의 응호자로 끌어드려려는 부질없는 주장은 철학회였으면 한다. 초월 계시의 성경과 내재의 학문인 자연과학이 일치하지 않고 침투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부질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입장을 마치 성경과 과학의 진리인 저처럼 결론을 오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의 사실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결론해야 한다는 점이다.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쿨 라이브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 책'

아극당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치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세,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도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이렇게 의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찮고, 오래되고, 물물였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
진정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석기 미디스 미호체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분야 03-708-7000

금정아일스북스 | 그림: 바비관 예술원 | 출판 일정: 2014.10.09